

同好同樂



(주)동명정보기술/대표이사 고재엽

과거 하루라도 벌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먹고살기 위해서가 아닌 趣味를 위한 시간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다. 생활자체가 먹고살기 위함이 아닌 “여가생활” 이라는 삶의 일부가 추가되면서 자신의 취미나 특기, 관심분야의 소질을 더욱 개발하고 그 속에서 만족과 성취감을 찾는 일련의 활동들을 보다 많이 떠나가게 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한두 가지의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경제발전이 개인의 취미생활에 많은 영향이 있음을 새삼 실감케 된다. 요즘에는 취미나 특기도 다양해져서 어릴적 우리가 限定되게 가졌던 독서나 바둑, 음악감상, 등산 외에도 個性이 강한 신세대들 사이에서는 저마다 자신만의 독특한 취미를 갖기 위한 바람이 꽤 거세게 불고 있는 것 같다. 노랗게 물든 머리와 나름대로 옷차림의 춤, 희귀한 물건 수집, 여행을 돈버는 투자로 삼는 일 등 취미도 各樣各色으로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이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할지를 몰라 여분의 시간을 단지 여분으로 남겨두는 사람들, 혹은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자신의 시간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볼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의 일생 중 수면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을 일에만 얽매여 보내려고 하지 않는 이상, 누구나 자신의 취미생활을 위한 투자에 게으름이 없어야 자신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필자 역시 특별히 내세울만한 취미활동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한때는 누구나 그랬듯이 책을 무척이나 좋아하여 무협지, 옛세이, 장편 다큐멘터리에서부터 세계문학작품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읽어대곤 했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습관이 되었는데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도 책은 나의 유일한 취미가 되어 가끔 일찍 퇴근하는 날은 여지없이 옆구리에 책을 끼고 방에 들어앉았고 밤을 새워가며 讀書三昧境에 빠져들기도 했다. 그러다가 몇 년간 피우던 담배와 체질적으로 맞지 않던 술을 끊게 되면서 동료들과 어울려 山行을 즐기게 되었고 때로는 고향 동기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테니스를 치기도 하였다. 운동을 하면서 차츰 깊은 만족감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한때 내 趣味生活이 되어버린 때가 있었다. 매주 일요일마다 정감 어린 동기들과 만나 간편한 옷차림으로 테니스 라켓이 내는 가벼운 바람소리를 듣는 그 기분이라니 !

세월이 흐르면서 직장동료나 고향친구들이 지방이나 해외 등으로 멀어지면서 멤버가 자주 바뀌게 되었고 나에게도 새로운 취미가 생기게 되었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져오고 있는 모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골프 인도어 (Indoor) 모임이다.

모이는 장소가 연습장이고 휴일이면 자연스레 모이게 되니 부담도 없다. 스키나 골프가 이제는 富裕層만의 스포츠가 아닌 국민스포츠로서의 자리 매김을 하고 있으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려한 모임이 결코 아니다. 다만 한 가로운 휴일에 약간의 시간을 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사전에 장소나 시간의 약속이 필요치 않다. 금전적인 부담도 별로 없다. 도착하는 대로 한 타석에 모여 마치 시합이라도 하듯 연습을 한다. 대여섯 명이 2 Box씩 정도를 치고 나면 어느새 한나절의 시간이 지나버리곤 한다.

중간중간 음료수로 땀을 식히며 情談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처음 본 사람들도 우리의 멤버가 되어버리곤 한다. 서로의 포즈를 다듬어주기도 하고 그간의 근황을 서로 확인하면서 건강과 즐거움을 모두 느끼는 一石二鳥를 경험하는 셈이 된다. 때로는 내기연습을 하기도 해 음료수, 점심, 공 같은 가벼운 경쟁거리를 붙이기도 한다. 우리의 운동열기는 점점 더해가고 공은 파란 스카이라인을 따라 멀리 날아가지만 우리에게겐 그것이 더 이상 취미생활만이 아닌 정다운 동료들과의 모임인 것이다.

여기에 모이는 회원들이 대부분 電算分野이고 보면 직업과 취미도 관계가 있는 것일까? 특히 우리같이 머리 쓰는 전산쟁이에게는 더욱 스트레스 해소책이 필요한 것 같다. 무엇인가 두들겨 패고 싶은 충동, 느린 운동보다 압축된 힘의 발산과 어딘지 모르게 쌓여있는 분노 같은 강한 스트레스를 공을 상대로 풀어보고 싶은 정신적 발산이랄까. 어찌되었건 나에게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꽤 좋은 놀이인 듯 하다.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서대문구청 뒤 안산(鞍山)의 西南 쪽 산마루에 골프연습장(연희골프연습장)이 하나 있었다. 도심속에서 쾌적한 자연을 벗해 한나절을 친구, 동료와 어울려 운동을 하기엔 더없이 좋은 곳이었었는데 언젠가 문을 닫는 바람에 모임의 장소가 옮겨져 지금은 구과발 넘어 통일로 입구에 위치한 '1.2.3 연습장'이 우리의 아지트가 되었다. 별, 나비가 꽃을 찾아 모여들 듯이 우리모임의 곳곳한정이 내는 향기에 이끌려 서로들 모이는 것을 보면 골프연습은 名分이고 그저 만나서 얼굴한번 더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봄이면 노란 개나리꽃을 背景으로 앞산과 옆산에서 붉게 물들어가는 진달래와 복숭아, 멀리 산 아래로는 연록의 버들가지, 여름이면 푸르다못해 검게 보이는 산림, 가을의 울긋불긋 불이난 듯 한 단풍, 그리고 겨울이면 흰 눈으로 덮인 탁 트인 시야가 하늘을 가르고 날아가는 하얀 공을 따라 눈안으로 自然의 신비함이 그대로 들어오게 된다. 자연과 쉽

게 동화되는 순간, 그곳에 모인 우리 회원들 모두 한마음임을 확인하게 되는, 그야말로 同好同樂이 아니고 무엇이랴. 빛 바랜 사진첩을 뒤적일 때 느끼는 아늑한 기분으로 나의 취미생활과 정겨운 얼굴들과의 만남은 이어져간다.

멋들어진 삶이 따로 있을까. 좋은 이와 만나면 그만인 것을.